

베이루트 폭발 참사... 5천 명 이상 사상

지중해 연안 중동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이 벌어져 4천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폭발 순간,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도심 위로 치솟아 오르고,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으로 도시가 뒤흔들리며 순식간에 사방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레바논 정부는 사고 직후 항구 근처 창고에 적재돼 있던 2,750t 규모의 질산암모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공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BBC 화면 캡처

BBC 방송은 전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사고 다음 날 현지 알마나르TV 인터뷰를 통해 이날현재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요르단 지진관측소는 이날 폭발이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다고 추정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10km 거리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까지 박살 나고 지중해 넘어 200km 떨어진 키

프로스에서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한편,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에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1천억 레바논파운드 규모의 긴급 예산을 배정하는 등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카타르·쿠웨이트 등도 줄줄이 원조를 약속했다.

한국정부는 7일 현재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레바논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폭발은 전날 오후 6시 조금 넘어 베이루트 항구에서 진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작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된 동영상에는 항구의 한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도시는 이후 단 몇 초 만에 초토화돼,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주검들이 가득했다고 영국

영불해협 밀입국 시도 급증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가 AP 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날 17척의 배에 나뉘어 235명이 프랑스에서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일 기준 사상 최대로, 1주일 전 기록했던 202명을 뛰어넘은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이민자들은 그동안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갈레 등 프랑스 북부 지역을 이용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영불해협을 건너는 페리나 화물트럭 등을 주로 밀입국에 활용했다. 그러나 팬데믹(코로나19)으로 인한 물동량 축소 등으

로 이용 기회가 줄어들자 소형보트나 카약 등을 통해 직접 영불해협 횡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영불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20.7마일(약 33.3km) 정도인 데다, 최근 화창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위험을 무릅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영불해협 횡단을 시도하는 이들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안전한 나라인 만큼 굳이 영국으로 건너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군 함정 등을 영불해협에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 훈련에 반발



▲ 공개된 영상 속의 공중급유 장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중국이 최근 베트남 등 인접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해외판 애플리케이션 '하이커 뉴스' 등에 공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중국 인민해방군 3개 전구(戰區)가 공군의 전투태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커 뉴스가 4일 공개한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가 수호이(Su)-30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기를 남중국해 수비 압초 부근 상공으로 출격시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영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수비 압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커 뉴스는 이번 훈련이 공중급유를 포함해 10시간 이상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훈련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레티 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 같은 훈련에 대한 질문에 "쯔영사군도와 호앙사군도(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는 베트남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두 곳에서 베트남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동은 심각한 베트남 주권 침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 화해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